

#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10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 국어 영역 •

### 정답

|    |   |    |   |    |   |    |   |    |   |
|----|---|----|---|----|---|----|---|----|---|
| 1  | ① | 2  | ② | 3  | ④ | 4  | ② | 5  | ① |
| 6  | ⑤ | 7  | ③ | 8  | ⑤ | 9  | ⑤ | 10 | ③ |
| 11 | ② | 12 | ① | 13 | ④ | 14 | ④ | 15 | ⑤ |
| 16 | ④ | 17 | ① | 18 | ④ | 19 | ④ | 20 | ② |
| 21 | ③ | 22 | ④ | 23 | ⑤ | 24 | ⑤ | 25 | ② |
| 26 | ① | 27 | ③ | 28 | ⑤ | 29 | ⑤ | 30 | ② |
| 31 | ① | 32 | ② | 33 | ① | 34 | ④ | 35 | ③ |
| 36 | ⑤ | 37 | ① | 38 | ③ | 39 | ② | 40 | ③ |
| 41 | ④ | 42 | ③ | 43 | ⑤ | 44 | ② | 45 | ① |

### 해설

####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5쪽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여우에 관한 전래 동화를 읽어 본 적 있으시죠?'라고 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 후 토종 여우의 복원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토종 여우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로 '전국 쥐잡기 운동'과 '밀렵' 그리고 '서식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요인 하나만을 골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토종 여우의 생김새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라며 사진을 제시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토종 여우의 멸종이 고라니나 멧돼지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먹이사슬에서 토종 여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토종 여우가 안정감을 느끼고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플라 스틱 박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토종 여우가 다시 우리 산야에서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토종 여우의 생태계 정착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토종 여우가 생태계 정착에 성공하면 '고라니나 멧돼지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학생 2'는 복원이 시도되고 있는 반달가슴곰과 산양도 '우리 생태계에서 토종 여우만큼 중요한 종'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 [4~7] (작문-화법)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9쪽

4. [출제의도] 기자의 취재 계획이 기사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메모한 취재 계획에 따르면 '○○ 아파트 주민 측과의 인터뷰' 하위 항목으로 '택배 차량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택배 업체의 배송 거부에 황당해하는 '주민 측'의 반응만

제시되어 있을 뿐 택배 차량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나와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기자가 기사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보기>와 달리 '현재 아파트 후문에는 ~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앞서 ○○ 아파트와 택배업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후에 이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가 <보기>를 ㉠과 같이 수정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은 ㉠이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협상에 나타난 '업체 측'의 협상 전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거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 측'이 '주민 측'에 전동 택배 카트를 기증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측'이 이를 수용했을 때의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자신들이 전동 카트를 기증하고,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업체 측'은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할 경우 무거운 택배 물품을 일일이 옮겨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기존처럼 택배 차량들이 단지 내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자신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 '업체 측'은 손수레를 이용할 경우 배달 시간이 평소보다 5배나 더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③ [C]에서 '업체 측'은 저장 차량을 도입하려면 기존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택배 거점 시설의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D]에서 '업체 측'은 택배 거점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거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 아파트에서 하고, 배달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며 상대의 수용 여부를 묻고 있다.

7. [출제의도] 협상에 나타난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주민 측'은 택배 기사님들이 고충이 많다는 걸 안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스마트 카트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각자가 운영비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와 ㉢에 적절한 설명은 ㉢이다.

####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72쪽

8.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 기준에 맞추어 선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4>는 '출처'가 '신소재 공학 학회지'로 분명하며 신뢰할 만하지만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신의 연구 결과가 아닐 것이므로 (나)의 선별 기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초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④ <자료 3>은 그 '내용'이 '규소를 활용한 미래 기술'로 그래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초고'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문단에서 그래핀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그래핀을 분리해 내는 것의 어려움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설명하고 있다. '원자층이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잔존하는 화학 물질'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순수한 단일 원자층을 얻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10. [출제의도] 친구의 조언을 반영하여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는 그래핀의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에는 '순수한 그래핀을 박리해 큰 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그래핀의 상용화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드러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그래핀이 상용화되었을 경우 '과학 기술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언급하고 있다.

#### [11~15] (언어)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51쪽)

㉠과 ㉡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과 ㉡에서 일어난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오답풀이] ④ ㉢에서는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고, 'ㄴ'이 다시 'ㄹ'으로 바뀌었으며 '이'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었으므로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또한 ㉣에서는 '쪽'의 'ㄱ'이 'ㅇ'으로 바뀌고, '뽕'의 'ㄷ' 중 'ㄴ'이 탈락하였으며, '다'의 'ㄷ'이 'ㄸ'으로 바뀌어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⑤ ㉤의 경우 '이'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어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으며, ㉥의 경우 '뽕'의 'ㄷ' 중 'ㄴ'이 탈락하여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시제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9쪽)

지문을 바탕으로 할 때, '땀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었다-'는 사건이 과거의 것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쓰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수는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었다.'가,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를 통한 시제 실현 양상을 올바르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4쪽)

'문노라(문-+-ㄴ-+-오-+-라)'에 사용된 시제 선어말 어미 '-ㄴ-'와 근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는-'은 모두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③ 근대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는/ㄴ-'은 동사의 어간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다. 서술격 조사의 어간과는 결합하지 않았다.

14. [출제의도]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55쪽)

㉠의 '과'는 두 단어('동생', '나')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였으나, ㉡의 '과'는 앞말인 '선생님'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격조사로 쓰였다.

[오답풀이] ① ㉢의 '오로만'은 부사격 조사 뒤에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나 ㉣의 '까지도'는 보조사 뒤에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③ ㉤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였다. ⑤ ㉥의 '상처는'은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15. [출제의도] 재귀 대명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0쪽)

'동생들은 저희가 똑똑한 줄 안다.'의 '저희'는 앞서 나온 3인칭 주어인 '동생들'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인 재귀 대명사로 쓰였다. 참고로 '저희 때문에 선배

님이 고생하시는군요.'처럼 쓰였을 때에 '저희'는 1인칭 대명사이다.

**[오답풀이]** ①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의 '네'는 2인칭 대명사인 '너'의 이형태이다. '네'는 1인칭 대명사 '너' 뒤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16~21] (사회 융합)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6쪽**

**16. [출제의도] 두 지문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인공 지능 로봇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범죄의 책임 귀속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으로 여러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 (나) 모두 화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화제에 대한 관점의 문제점도, 그에 대한 대안적 관점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③ (가)는 화제에 대한 상반된 두 이론이 소개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결론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나)는 화제에 대한 상반된 두 이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두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힐겐도르프는 인공 지능 로봇의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공 지능 로봇의 책임 능력은 법인의 책임 능력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한편 부정론은 인공 지능 로봇에 책임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답풀이]** ② 인공 지능 로봇에 책임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힐겐도르프와 달리, 부정론은 인공 지능 로봇에 비난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능력을 부여할 수도 없다고 본다. ③ 힐겐도르프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행위지만 인공 지능 로봇의 행위는 자연인의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와 다르다. ④ 부정론에 의하면, 인공 지능 로봇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자유가 없으므로 책임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⑤ 힐겐도르프와 부정론은 모두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책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나)에 소개된 특정 법률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체에 민사적 손해 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과실범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조물 책임법은 형사적 책임과 구분되는 민사적 손해 배상을 다루고 있다. ② 현행법은 인공 지능 로봇의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 ③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과 관련된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제조물 책임법이 민사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과 관련한 법익 침해에 대해 제조업체에 책임을 귀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19. [출제의도] (나)를 참고하여 각 사례에 부합하는 것을 바르게 짝 지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부진정 부작위범과 진정 부작위범의 사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본래부터 부여된 위험 방지의 의무인 보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 이와 달리 후자는 특정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행위를 하지 않음' 그 자체로써 범죄가 성립한다.

**[정답풀이]** ㄱ. A는 감염병 확산으로 집회를 해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행위를 하지 않음 그 자체로써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

례는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ㄴ. B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ㄷ. 현지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외교관 C가 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부진정 부작위범의 사례이다. ㄹ.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것은 수상 안전요원 D의 의무이다. 전화 통화를 하느라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사례이다. 종합하면 ㄱ은 진정 부작위범, ㄴ, ㄷ, ㄹ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두 지문을 바탕으로 법학자의 제안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법익 침해 사례에 대해 제작자나 사용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상의 국가에서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과 관련하여 제작자나 사용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로봇에 책임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외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양벌 규정으로는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과 관련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답풀이]** 인공 지능 로봇의 책임 능력은 제작자나 사용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먼저 인공 지능 로봇에 책임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로봇법 제10조에는 오작동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1조의 양벌규정으로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관한 것까지 제10조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법학자는 인공 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줄이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간접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작동의 상황이 아니라 로봇을 도구로 활용하는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것이다. ③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민사적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 ④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은 법익 침해를 야기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작자나 법인 등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익 침해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양벌규정으로 인공 지능 로봇의 행위를 처벌하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 ⑤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만, 이는 결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 로봇 제작자들이 오작동을 예견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결과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범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1.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배치'는 문맥상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이라는 의미이며, ③의 '배치(背馳)'는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남.'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22~24] (고전소설) 서유영, '육미당기'(연계 지문 : 수능특강 279쪽)**

**22. [출제의도] 서사 진행과 관련한 작품 속 공간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은당)은 현재 상서와 백 소저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여기서 상서에 의해 과거 자신이 겪은 경험이 술회되고 있다. 상서는 먼저 ㉡(과봉루)에서의 일을 술회하고, 그 뒤 백 소부의 집에 있을 때의 일

을 이야기하면서 ㉢(부용헌)에서 백 소저가 절구를 읊은 일을 술회하는데, ㉣은 백 소부가 상서를 거두었다가 귀양을 가게 된 후에 상서가 이르게 된 곳이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에서의 사건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에서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뒤 지금 ㉠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에서 백 소저가 상서에 절구를 읊은 일에 대해 현재 ㉠에서 상서가 백 소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에서 두 인물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에서 그중 한 인물이 나머지 한 인물에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에서 상서는 옥성 공주를 모시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나, ㉢에서는 상서가 백 소저와 예술적 재능을 겨루는 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상서가 소저의 절구를 듣고서(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귀로 들은 것이다.) 소저를 평생기기로 삼기로 결심한 것은 아직 상서가 백 소부의 집에 머무는 때이니, 시력을 회복하기 전의 일이다. 그러므로 소저의 용모와 시를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소저를 평생기기로 삼기로 했다는 것은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문에서도 이 무렵 소저에 대해 '비록 그 용모는 보지 못하나'라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상서는 어머니의 서간을 공주가 낭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슬피 울다가 두 눈이 홀연 떠졌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어찌 하늘의 하신 바가 아니리오?'라고 해석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상서가 건네준 화선지(자신이 지은 절구가 적힌)에서 자기가 지은 필적을 확인한 후 상서를 '신의가 있는 군자'라 칭찬하고 있으므로, 소저가 그동안 상서가 밝힌 진심을 신뢰하게 되었음은 사실이지만, '상서가 깨달을까 염려하여' 화선지를 상서에게 도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수절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 없으며 소저가 상서에게 '백 소저가 당일에 읊은 글귀를' '언어 들을 수 있'겠는지 묻는 것은, 상서가 진정으로 백 소저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글귀를 기억하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직하고 있)을 것이므로 어디 한번 말해 보(거나 내놓아 보)라는 뜻이다.

**[25~27] (희곡) 유치진, '소'(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0쪽)**

**25. [출제의도] 희곡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우리 집'은 귀찬이 부가 자기 가족의 집을, ㉡의 '우리 집'은 국서 처가 자기 가족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문에서 국서 처는 귀찬이 부에게 '말을 잘 가져서 보통이 신세는 면하겠'다며 귀찬이네의 가족 구성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에는 ㉠의 가족 구성에 대해 부러움을 표하는 인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귀찬이네와 국서네는 모두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다. 도지를 내야 한다거나, 땅을 떼일까 걱정이라거나 하는 말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농사가 잘되는 것이 오히려 흉년이 드는 것만 못하다는 국서 처의 말은, 풍년이 들어 농사가 잘되어도 밀린 도지 때문에 정작 흉년이 들 때보다도 손에 쥐는 것이 없게 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 상황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나온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귀찬이 부는 땅을 빼앗기면 귀찬이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딸을 팔았다. 하지만 귀찬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불안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㉔ 부분의 억지로 짜내는 듯한 대사와, 지문 마지막 대사에서 이러한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귀찬이 부가 딸을 팔았을 때의 의도(일본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와 딸을 팔고 난 후의 결과(소식조차 없는 상황)가 어긋나면서 비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⑤ 귀찬이 부는 자식을 팔아 버린 자신을 자책하며 흐느껴 운다.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합리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인물의 내면이, '중략' 앞과는 달리 정직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가난 속에서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당하며 내면까지 피폐해져 가는 당대 농민들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27.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지문과 대사의 연기 방안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앞에서 귀찬이 부는, 귀찬이가 자신들에게 덕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국서네에 대해 빈정대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서 처는 ㉔과 같이 말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딸을 낳을 때만 해도 귀찮다고 했는데 그 딸이 덕을 보이니, 세상일은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상대방의 빈정대는 말에 기분이 상한 듯 불쾌해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귀찬이에게서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던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이다. ㉔ 바로 뒤의 우삼의 대사에서 '소리를 푹푹하게 허게!'라는 말이 나오므로, 귀찬이 아버지의 앞 대사는 분명치 않은 발음과 작은 소리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⑤ 우삼이 어깨춤을 추는 등 익살을 피우는 동안 귀찬이 부가 울고 있음을 젊은 일꾼이 발견한 상황이다. 깜짝 놀라서 우삼을 만류하며 말해야 하는 대사이다.

**[28 ~ 32] (인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9쪽**

**28.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박세당의 입장과 같은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인 입장은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탈주자학적 해석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개혁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와 '기(氣)'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주자학과 달리 박세당은 '도'와 '기(器)'를 중심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한다.

**[오답풀이]** ① 주자학에 따르면 도덕적 수양을 통해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앎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그에 따른 실천이 가능하다. ② 조선 사회를 움직여 온 통치 이념은 성리학, 즉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주자학이었다. ③ 박세당은 성인(聖人)이 아닌 일반 백성도 일상에서 도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성현의 말씀에서 파악하였다. ④ 박세당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자학에 근거를 둔 개혁안, 즉 대의명분이나 신분 질서만을 강조하는 개혁안에 대하여 반발하여 명분과 수양보다 실천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박세당이 주자학적 인식을 참된 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박세당에 따르면 '처물'이란 사물의 마땅한 바인 '칙'에 따라서 일을 알맞게 처리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물'이 '격물치지'의 올바른 해석이다.

**[오답풀이]** ① 박세당은 신권 주도의 정국 운용이 야

기하는 혼란을 지적하고 왕권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왕권의 강화가 실질을 강조하는 자신의 탈주자학적 관점과 현실 인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② 박세당에 따르면 '도'는 사물에 앞서 존재하면서 사물에 형상을 부여하는 근원적 원리이자 이치이다. 즉, '도'는 사물이 형성되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이'와 같은 것이다. 사물에 내재해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개별 사물마다의 이치인 '칙'이다. ③ 박세당에 따르면, 개별 사물들은 '기(器)'이며, 또한 그것들은 고유한 이치인 '칙'을 본성으로 갖는다. ④ 박세당에 따르면, 인간 이외의 개별 사물들은 도덕적 '덕'을 본성으로 갖지 않는다. 사물과 달리 인간은 천리를 깨달을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본성으로 지닌다.

**3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지문의 특정 표현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이를 통해'는 '이'와 '기(氣)'로써 세계를 설명하는 주자학적 인식에 대비되는, "도"와 '기(器)' 중심의 인식을 통해'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만물의 이치인 '이'와 함께 사물의 질료인 '기(氣)'를 토대로 하는 인식에 대비되는 인식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㉔은 대의명분이나 신분 질서만을 강조하는 대응에 대하여 반발하는 입장, 즉, 송시열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혁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③ ㉔은 주자학적 입장과 박세당의 입장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박세당은 주자학적 입장과 달리 만물은 '이'가 아니라 고유한 '칙'을 본성으로 가지며, 인간은 사물과 달리 도덕적 능력을 본성으로 지녔다고 보았다. ④ ㉔은 주자학에서 '격물치지'를 통해 이르는 앎의 궁극적 상태로서 인간과 모든 사물에 내재된 '이'를 깨닫는 상태를 의미한다. ⑤ ㉔은 사물의 '칙'에 대한 앎, 즉 개별 사물마다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법칙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

**31.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를 근거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 경향 중 하나인 양명학을 수용하는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만물을 관통하는 원리인 '양지'가 '천명지위성'으로 존재한다. 주자학적 입장과 달리, 개별 사물에는 만물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양명학에 따르면 '격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이'를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치지'란 양지를 최대한 발현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정답풀이]** 양명학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만물의 근원적 이치인 '양지'가 자리한다. '양지'는 천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 즉 '천명지위성'이다. 주자학 역시 만물의 근원적 이치인 '이'가 인간에게 '천명지위성'으로 내재해 있다고 본다.

**[오답풀이]** ② 양명학에 따르면, '격물'이란 마음이 작용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는 앎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과 같다. 양명학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앎은 실천 그 자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주자학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양명학에 따르면 사물에 나아가 궁구할 필요가 없다. 개별 사물의 이치는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세당은 개별 사물에는 고유한 이치인 '칙'이 있으며, '격물'이란 사물의 '칙'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양명학은 인간 이외의 개별 사물에는 만물의 이치인 '양지'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만물의 이치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⑤ 박세당은 양명학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을 따라 실천하거나 사물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명학의 입장과 박세당의 관점은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32.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고려하지(고려하다)'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이므로, '헤아리지(헤아리다)'로 바꿔 쓸 수 있다.

**[33 ~ 36] (기술)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54쪽**

**33.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잔류 편차는 제어량에 의해 모터의 분당 회전수가 조정되면서 현젯값이 목표값에 가까워지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도록 제어량 산출 시마다 발생하는 오차이다. 잔류 편차는 현젯값이 목표값에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조정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차이므로, 이것 자체가 프로펠러의 현젯값이 목표값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문제를 낳지는 않는다. 한편 오차의 누적치를 계산해 두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로 오차가 누적되어 목표값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드론은 전파로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체이다. ③ 일정 시간 간격마다 제어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분당 회전수가 달라질 수 있다. ④ 프로펠러에 의해 공기가 밀려남에 따라 떠 있도록 하는 힘이 양력이고, 공기를 밀어내어 전진하게 하는 힘이 추력이다.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항력은 드론이 움직이고 있을 때 공기의 저항에 의해 받는 힘이다. ⑤ 드론이 전진하려면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진행 방향을 바꾸려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자이로스코프 센서로 기울기의 상태를 감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4.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을 적절하게 메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드론이 조금 기울어져 있으며 같은 높이에서 움직이므로 양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이다. 또한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드론에 작용하는 항력은 추력과 같다(A). 추력과 항력이 같은 상태가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등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가속이나 감속 등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므로 프로펠러의 제어량은 0일 것이다(B).

**35.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표값은 사용자의 명령 신호가 있을 때에 드론의 현재 상태와 명령 신호 등을 함께 분석하여 정한다. 현재 상태는 각종 센서들을 통해 얻는다.

**[오답풀이]** ① 드론에는 여러 프로펠러들이 있는데 이들 프로펠러들은 각각 다른 목표값을 가진다. 그래야 드론의 기울기 등이 바뀌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될 수 있다. ② 잔류 편차를 누적시켜 두다가 기준치를 넘어 반영할 때에 목표값이 바뀌는 이유는 없다. 목표값은 잔류 편차와 상관 없이 현재 상태와 명령 신호에 따라 정해진다. ④ 현젯값은 센서들을 통해 얻은 현재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목표값이 현젯값 산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목표값은 사용자의 명령 신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가급적 현젯값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3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제어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펠러에 대해 산출한 값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을 함께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시간    | 1초 | 2초  | 3초  | 4초  | 5초  | 6초  | 7초  |
|-------|----|-----|-----|-----|-----|-----|-----|
| 현젯값   | 5  | 9   | 11  | 8   | 9   | 12  | 3   |
| 목표값   | 15 | 15  | 10  | 10  | 10  | 18  | 18  |
| 잔류 편차 | 0  | 0.5 | 0.6 | 0.3 | 0.2 | 0.2 | 0.1 |
| 차이값   | 10 | 6   | -1  | 2   | 1   | 6   | 15  |
| 누적치   | 0  | 0.5 | 0.6 | 0.9 | 1.1 | 0.2 | 0.3 |
| 미분값   |    | -4  | -7  | 3   | -1  | 5   | 9   |

**[정답풀이]** 7초 시점에서 비례 제어만 사용하는 경우에 제어량은 차잇값에 해당하는 15이다. 세 가지 제어 방법을 모두 쓰는 경우에 잔류 편차의 누적치는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영되지 못한다. 다만 차잇값이 15이고 직전 차잇값이 6이므로 차잇값의 변화량인 미분값이 9이다. 따라서 차잇값 15에 미분값 9를 더한 24가 제어량이 된다. 즉 비례 제어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제어량이 9만큼 더 크다.

**[오답풀이]** ① 목표값이 변한 시점, 즉 3초 시점과 6초 시점에 새로운 명령 신호가 발생하였다. ② 3초 시점에 차잇값이 -1이다. 따라서 모터의 분당 회전수가 1만큼 낮춰질 것이다. ③ 누적치는 목표값이 변한 3초 시점부터 초기화되어 4초 시점에 0.9가 된다. 즉 적분 제어에 사용되는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비례 제어만 사용하는 경우나 적분 제어까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제어량이 동일하다. ④ 5초 시점에 잔류 편차의 누적치는 1.1이므로, 제어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차잇값인 1에 1.1을 더하여 구한 제어량은 2.1이다.

**[37~41] (현대시-현대소설) 김현승, '양심의 금속성'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 박완서, '겨울 나들이' (작가연계: 수능특강 31쪽, 258쪽 / 연계 지문: 수능특강 282쪽)**

**37.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찌르다'에서, (나)에서는 '된다', '분다', '한다', '붙어 간다' 등에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시적 상황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나)에서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나비'를 비롯한 작품 내의 다른 소재와 대립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38.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소'에서 불의 파괴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만, '눈물'에서 강압적 권력에 의해 희생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시인의 나약한 일면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눈물'을 흘리는 주체는 '너'인데, 이 '너'는 불의에 항거하려는 시인의 고독하고 순수한 정신('양심')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눈물'은 '모든 것'이 '취'한 와중에 자신만 '호을로' 깨어 있다는 자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불의한 시대에 맞서는 시인의 내면을 '불'과 대비되는 '물'의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나'의 '육체'를 이루는 '물과 피'는, 증발되거나 희석될 수 있으며 형태가 변할 수도 있는 액체의 가변적 성질을 환기한다. 이러한 성질은 부드러운 느낌을 환기하는 '살'로 이어져,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려는 약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달리 '모나고 분쇄되지 않는' 성질을 지닌 '너'는 '살'에 박힌 파편'처럼 '나'를 '쉬지 않고 찌른다'. 이를 통해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순수를 지키도록 스스로를 체찍질하는 시인의 정신을 떠올릴 수 있다. ④ '등불'에 '취'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지 못한 채 등불을 향하여 다가가는 부나방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시인은 이를 통해 권력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9.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화자는 '너'가 '나의 꿈과 사랑과 나의 비밀'을 찌르는 것을 '동지적이고 격렬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지적'이라는 것은 '너'의 지향이 화자의 지향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격렬'하다는 것은 그

러한 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와 끊임없이 대립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에서 '너'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음을 표현한 셈이다.

**[오답풀이]** ④ ㉡의 '아직도'가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나비'는 강 너머로 가고자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은 서로 간의 대립이 온전히 해소된 곳으로 볼 수 없다. '철조망'이 환기하는 경계의 이미지나 '슬픈'이라는 수식어에서 대립이 온전히 해소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두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도리질을 해 왔다는 설명이나, 이를 통해 개인의 내면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이 쉽게 지워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인민군들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가 아들의 위치를 잡아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도리질을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연약한 존재인 '나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것처럼 연약한 존재가 고통을 감내하며 '마즈막 <꽃밭>'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의지의 치열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의 제1연에서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른다는 것은, 양편의 존재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숨'은 제5연의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리움이 염원으로 이어져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우발적인 발포 이후 '그들'이 급히 줄행랑을 쳤음을 의미한다. 지문에서는 '그들'이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먹을 것이나 달걀 생각이었으리라는 추측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주머니'가 '그들'의 방문 목적이 처음부터 '남편'을 해치는데 있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남편'은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조차 잊고 '남편'이 뛰어나간 것이나, 아내인 '아주머니'가 이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42~45] (고전시가) 정도전, '선인교 나린 물이~' / 유응부, '간밤의 부던 바람에~'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작자 미상, '달 밝고 서리 찬 밤에~' / 호석균, '꿈에나 님을 보러~' (연계 지문: 수능특강 38쪽, 47쪽 / 제제 연계: 수능특강 47쪽)**

**42.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선 후기에 시조창의 수요가 증대된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즉흥적 창작의 경향이 새로이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지문에서는 시조가 고려 말에 양식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시조가 즉흥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원인은 구조와 표현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시조는 발생 단계부터 즉흥적 창작에 용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즉흥적 창작에 걸맞은 구조와 표현법을 지닌 채 전승되고 있었으므로, 가집으로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을 만큼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서는 시조창의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가집이 필요해졌으며, 가집에 수록된 시조는 수천 편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조창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수요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작품 목록이 필요해졌고, 따라서 기

존의 수많은 시조 작품들을 수집 정리하여 목록화하기 위해 가집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지문에서는, 가집 편찬자들이 구전되던 동일한 작품을 수록하면서도 편찬자에 따라 같은 작품의 작가 이름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구비 전승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작자 미상의 시조(=가집에 작가가 제시되지 않은 시조)가 많은 이유가 구비 전승과 관련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43.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의 초장에서는 화자가 헤어져 있는 임을 그리워 하면서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잠을 이루려 함을, 중장에서는 화자가 새벽달이 지새도록(즉, 밤이 새도록) 자규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새벽달을 보면서 마음을 달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③ 배꽃에 달빛이 비치는 봄밤의 분위기에 '자규'라는 시어가 환기하는 두견새 울음소리의 청각적 심상이 봄밤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④ 달 밝은 가을밤, 서리 내리는 찬 기운에 떨리서 들리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더해져, 차가운 느낌의 여관 등불 아래 나그네의 심회가 고조되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조의 '공식구', 즉 관습적 표현에 해당하는 [A]의 종장 첫 구는 '아회야'인데, 이를 '두어라'로 바꾼다면 중장에서 종장으로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시상 전환이 부각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는 고려의 왕업을 무상하게 여기는 심정은 드러나 있을지언정, 고려 왕조의 몰락을 한스러워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A]의 종장은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해 굳이 따져 묻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어라'로 바꿀 경우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로의 시상 전환이 부각될 것이다.

**[오답풀이]** ③ 표현상으로 비슷하지만, [A]에서는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굳이 따지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B]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뻔한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꿈에서라도 그리운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상황을 생각하면, [E]의 초중장의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자규'에게 원망을 품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중장에서 화자는 자규나 자신이나 봄날의 애끓는 마음으로 울기는 마찬가지이니, 무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가 품었음 직한 감정과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종장 첫머리의 '두어라'는 시상 전환의 표지로서, 이러한 차이를 선명히 하는 효과를 지닌다.

**45.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는 화자가 삼경까지도 잠 못 들어 하며 '자규'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E]는 화자가 새벽달이 지새도록 '자규'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화자가 봄밤의 정서를 느끼는 [C]에서, '이화'나 '달', '은한'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서를 북돋우는 '자규'가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D]의 화자가 '기러기'에게 원망의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강 동정호 같은 경치 좋은 곳을 굳이 버려두고 왜 쓸쓸한 나를 찾아와 잠을 깨우느냐는 화자의 말을 보면, [D]의 '기러기'가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도 어렵다.